

보도 일시	2022. 1. 6.(목) 13:00	배포 일시	2022. 1. 6.(목) 09:0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용섭 (044-203-2411)
		담당자	사무관 김성열 (044-203-2416)

문체부 장관, 문화예술과 기술 융합 협력 확대 지원

- 1. 6.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카이스트 '교육·연구 분야 상호협력 협약' 체결,
성악가 조수미 문화기술 활용 공연 선보여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1월 6일(목) 오후 7시, 카이스트(KAIST) 대강당에서 열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와 카이스트(총장 이광형)의 교육·연구 분야 상호협력 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문화예술에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이어 문화기술을 활용한 성악가 조수미의 공연을 관람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카이스트는 문화예술과 최첨단기술의 융합 확대를 위해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다. 앞으로 ▲ 교직원의 상호교류, ▲ 학생의 상호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협력, ▲ 연구센터 공동 운영 및 학술회의 공동 개최, ▲ 융합예술 및 첨단콘텐츠 공동 창작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식 이후에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초빙 석학 교수이자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와 바리톤 이우영(Chris W. Young)의 공연도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소프라노 조수미의 독창뿐만 아니라 카이스트가 개발한 인공지능 피아노 연주자(VirtuosoNet)와의 협연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화기술의 발전과 확장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문화기술 기반 디지털 역량 강화 위한 연구개발 확대

한편, 문체부는 올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R&D)에 전년보다 16.1%

증가한 1,323억 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5월부터 기술수요조사, 전문가 회의, 대국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연구개발을 추진할 신규 과제 24개를 확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 문화·예술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해 비대면 기반 신성장 동력 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강소형 중소 콘텐츠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콘텐츠 업계에서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활용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가상현실(VR) 등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실감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도 확대할 예정이다.

황희 장관은 “이번 협약 체결은 문화예술과 최첨단기술 간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화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콘텐츠 산업을 혁신, 도약시키고, 나아가 한류(K)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